

<출장 보고서>

1. 출장 개요

- 관련 과제: 한국산업 및 금융발전에 따른 무역보험 공사의 역할과 과제
- 출장 기간: 2012년 10월 3~6일
- 출장자(동반자)
 - 강동수 선임연구위원
 - 정규철 부연구위원
 - 손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
- 출장 목적: 일본 경제산업성, NEXI, JBIC 전문가 면담
 - 일본 무역금융의 현황 및 특징 파악
 - 일본 공적수출금융기관(ECA)의 위험 관리 방안을 듣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시사점 도출
 - 일본 ECA의 중소·중견기업 지원 방안 파악

2. 면담 내용

가. 일본 무역금융의 주요 특징

- 오랜 기간 동안의 낮은 금리 정책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적음.
 - 일본 기업의 자금 수요보다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한 구매자 신용 및 보증에 대한 수요가 큼.
 - 이는 한국 중소·중견기업들이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큰 것

과는 대조적임.

-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일본 ECA는 별 손실을 입지 않았음.
- NEXI와 JBIC 간에는 별 경합이 없음.

나. 일본 경제산업성(METI)

- 면담자: Yota Ono(무역보험과장), Hiroyuki Sameshima(과장보좌)
- 주요 면담 내용
 - NEXI의 위험 심사 시 일본 정부의 역할
 - 일본 정부는 개별 건에 대해서 NEXI의 심사 결과를 존중
 - 정부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액 계약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가짐.
 - 일본 정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관리하고, 사전에 NEXI와 일본 정부가 산업정책에 대해 협의하므로 별 문제가 없음.
 - NEXI가 제공하는 보험 규모
 - 2011년 기준으로 총 인수규모(total underwritten amount)는 8.5조엔
 - 2011년 기준으로 보험책임잔액(outstanding commitment)은 12.2조엔
 - 정부에서는 7000억엔 정도의 특별회계를 책정하고, 나머지 필요 자금에 대한 채권 발행 등은 재무성에서 관리
 - 최근 NEXI 개편 내용
 - NEXI가 제공하는 무역보험의 90% 정도를 정부 재보험으

- 로 관리하지만,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 독립 행정법인으로서 NEXI가 통합하여 관리
- 이 개편으로 NEXI는 더 독립적으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.
- 두 번째 단계로는 NEXI를 독립행정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변환
- 정책자금을 이용한 무역보험지원에 대한 입장
 - 일본은 한국에 비해 내수규모가 크고 해외 의존도가 낮아서, 한국만큼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음.
 - 수출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수출에 지원하는 정도로 맞추어서 지원
-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ECA는 별 손실을 입지 않았음.
 - 수출 진흥에 무역보험의 역할은 제한적임.
 - * 무역보험은 수출업자의 수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
 - * 오히려 엔화 가치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데, 이를 무역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음.
 - 리만 사태 이후 미국·유럽계 은행대출이 줄어들며 일본계 은행대출에 더 의존하여 부보액이 확대되었는데, 이런 금융지원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짐.
- 일본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보다 구매자 신용이 더 중요함.
 - 일본 기업의 자금 수요는 낮음.
 - 대개 일본 기업보다 수출 대상 기업의 위험이 더 높음.
 - 따라서 일본에서 무역금융은 구매자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, 구매자의 신용위험관리가 더 중요함.
- 중장기 보험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인식은 크지 않

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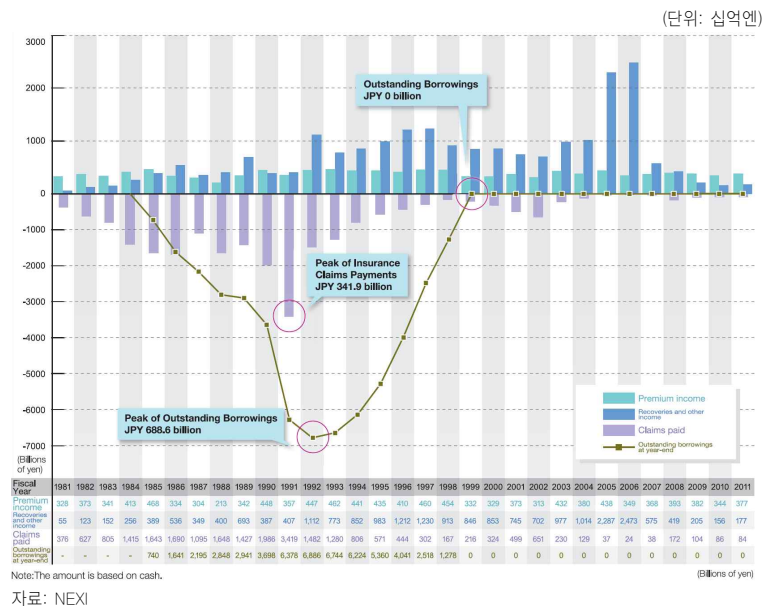
- 대개 수출 대상국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고, 비상위험에 따른 손실은 대부분 회수 가능함.
- NEXI 개편 후 예상되는 무역보험 지원변화
 - 일본 정부는 개편 후에도 NEXI 무역보험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
 - 위험 노출액은 자본금의 10배 정도가 적정해 보임.
 - 현재 일본 수출(2011년에 65조엔)의 10~15%에 대해 부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필요할 시에는 늘릴 수도 있음.
 - 보험금 지급이 많지 않아 자본을 적립하는 데 별 걱정이 없음.

다. NEXI(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)

- 면담자: Yuichiro Akita(총무부 경영기획그룹장), Kayo Fukuda(총무부 경영기획그룹 주임)
- 주요 면담 내용
 -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
 - METI의 주도아래 NEXI는 JOGMEC(Japan Oil,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), JBIC(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)과 3자 협력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지원
 - JOGMEC, JBIC, NEXI는 각각 equity, lending, insurance 기능을 갖고 있는데, 이렇게 서로 다른 위험을 보유하며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음.
 - NEXI가 특별회계에서 분리된 후 예상되는 변화

- NEXI는 1조엔 규모의 자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함.
- 공격적인 인수는 정부 부채를 높일 수 있으므로 NEXI의 레버리지는 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.
- 그 동안 NEXI는 위험관리에 성공적이었음.
- 1999년부터 정부에서 차입하지 않았음.

[그림 1] 무역보험 프로그램의 추세



- ECA는 민간보험에 비해서 오랜 기간 손실 회수에 대한 여력이 있으므로 비상위험에 대해 회수율을 높게 책정
- JBIC 및 민간금융기관과의 관계
- JBIC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공유 등을 협력
- JBIC은 대출을 하지만, 그렇지 않은 NEXI는 민간은행과

더 협조적임.

- 민간보험은 주로 자동차, 생명보험 등 내수 위주의 영업을 하므로 NEXI와 경쟁하지 않고, 오히려 NEXI의 보험상품을 소개하기도 함.

라. JBIC(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)

- 면담자: Masanao Komatsu(산업투자무역부 제1유닛장), Takako Ogimoto(산업투자무역부 제1유닛)
- 주요 면담 내용
 - 위기 시 JBIC의 자금 지원
 -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출
 - ESM 채권발행 등 유럽 재정위기 대응책은 JBIC의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IMF 총회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대응
 - 엔고 대책으로는 10조엔의 기금으로 해외 M&A를 지원
 - JBIC에 대한 평가방법
 - 국회심의를 받는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평가
 - 개별 안전에 대해 수출금융증가에 따른 수출 및 고용 확대 효과 분석
 - 연간 단위로 JBIC의 중기 목표를 양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
 - JBIC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
 - 개별 안전에 대한 지원
 - * 일본 정부 주도로 일본 민간은행, JBIC, 현지 은행이 협조해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, 개도국은행과는

MOU를 체결하고 현지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원

- Two-step loan: 여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

* JBIC은 현지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, 현지 금융기관은 일본 해외 진출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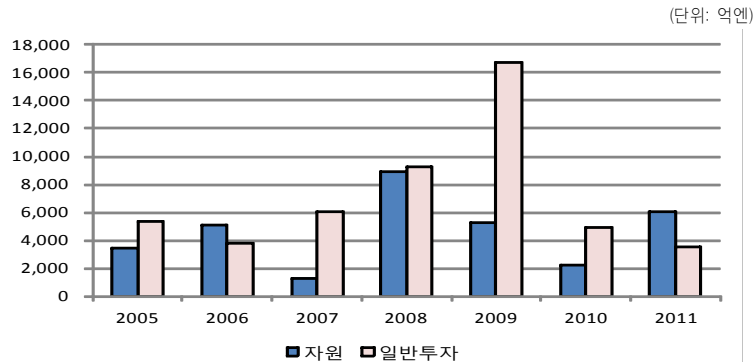
- 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

○ 해외 투자 대출의 규모

- 자원개발에 JBIC은 5000억엔 정도의 실적이 있고, JBIC이 대출 전체의 60%정도를 지원하므로 민간은행의 실적을 합치면 일본에서 자원개발에 공급하는 금융은 더 많음.

- 그 외 일반 해외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민간부분의 지원을 JBIC이 흡수하여 실적이 늘어남.

[그림 2] 해외 투자 대출



자료: JBIC

○ JBIC이 추구하는 비전 및 발전 방향

- 자연 자원의 확보

-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해외진출

-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해외사업 지원

- 금융위기 시 국제금융질서 확립 및 피해 최소화

○ JBIC과 NEXI의 관계

-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정보교환 등 협력

* JBIC은 수출금융의 60%(자원관련 사업은 70%)까지만 지원하는 내부규정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NEXI가 지원할 때 심사 및 결과를 실무자들이 공유함.

* 6대 4 비중은 JBIC과 NEXI간의 과거신사협정이며, 현재는 JBIC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음.

- 서로 협조할 일이 많고, 각자 운영하는 부분에서 업무를 하므로 갈등구조가 별로 없음.

○ JBIC의 위험관리와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

-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점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도 설정이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

- 국제정세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간혹 업무협조를 하지만, 대개는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기 보다는 JBIC 내부적으로 위험 관리

- JBIC은 큰 손실을 본 적이 없고,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을 처리할 수 있음.

*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가 보조한 경험 없음.

- 정부 방침에 따라 JBIC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지원을 해야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

* 예를 들면, 미군시설을 광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계획한 적이 있음(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음).

- JBIC은 BIS 적용을 받지 않으나, 국회 등의 시선을 고려하여 BIS비율을 공시(2011년 자본 비율은 21.23%)
- 감사원의 감사, 재무성의 업무감독, 유사은행으로서 금융감독청의 검사를 받음.
-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
- 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융자하고 있음.